

《唐宋八大家文鈔》를 통해 본 王安石 墓誌銘 고찰

이나영* · 이세동**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2. 허경(虛景)을 차용한 감정의 진실성 |
| II. 왕안석 묘지명 서술의 원칙 | 3. 의론을 통한 비판적 성찰 |
| III. 왕안석 묘지명의 문체적 특징과 표현 기법 | IV. 결론 |
| 1. 구성의 독창성 | |

I. 들어가며

죽은 이를 기리는 글이 과연 한 시대의 현실과 가치관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묘지명은 한 개인의 생애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가 속한 시대의 제도와 도덕, 정치와 사상을 함께 반영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표면적으로는 망자의 행적을 정리하고 공덕을 기리는 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물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 나아가 당대의 문제의식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학적 거울’로 기능할 수 있다.

묘지명은 고인의 생애와 공덕을 기록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한 고대 중국의 산문 문체로, 개인을 통해 시대를 조명하는 문체로 발전해 왔다. 명나라 문체론가 서사증(徐師曾)은 《문체명변(文體明辯)》에서 다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음과 같이 정의한다. “묘지명이란, ‘지(誌)’는 기록하는 것이고, ‘명(銘)’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 가운데 덕과 선행, 공로와 위업이 있어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이가 있으면, 죽은 뒤에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물을 주조하여 거기에 명을 새겨, 그 공덕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였다.”¹⁾ 묘지명은 일반적으로 산문 형식의 ‘지(誌)’와 운문 형식의 ‘명(銘)’으로 구성되며, 지(誌)는 망자의 출신, 생애, 품성, 공덕 등을 기술하고, 명(銘)은 글 전체를 개괄하며 예를 갖춰 추모의 정서를 표현한다.²⁾ 이러한 구조는 묘지명이 사실 기록과 도덕 평가, 문학적 표현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함께 어우러진 문체임을 보여준다.

묘지명은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며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되었고, 당대(唐代)에 이르러 더욱 정교한 문학 장르로 자리 잡았다.³⁾ 초기에는 주로 망자의 공덕을 찬양하는 목적이 강했으나, 당·송대에 접어들면서 문학적 완성도와 서사적 깊이가 더해지며 그 성격이 다층화 되었다. 다만,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정형화되어 온 형식은 일정한 틀을 유지함으로써 전통성과 기록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용의 반복과 과장된 미화로 인해 사실 기록의 가치를 흐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당대 문인들, 특히 중당(中唐)의 고문운동 계열 문인들은 문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흐름은 묘지명의 문학적 전환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당의 한유(韓愈)와 송초의 구양수(歐陽脩) 등은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문학적인 묘지명을 추구하였고, 이 흐름은 송대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은 묘지명을 통해 단정한 사람의 생애를 기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제도와 도덕,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까지도 담아내고자 하였다.

1) 徐師曾, 《文體明辨》三卷, 昨晟社, 1984, 448쪽. “墓誌銘一: 按誌者, 記也。銘者, 名也。古之人有德善功烈可名於世, 歿則後人爲之鑄器以銘, 而俾傳於無窮。”

2) 진필상(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희문화사, 1995, 274쪽 참고.

3) 孟國棟, 〈墓誌的起源與墓誌文體的成立〉,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43卷 第5期, 2013, 145-148쪽 참고.

왕안석은 고문운동을 계승하면서도 묘지명이라는 장르 안에서 문체 실험과 도덕적 사유, 현실 비판이라는 세 가지 지향을 통합적으로 구현하였다. 그의 묘지명은 사실과 감정을 절제된 문체 속에 압축하면서도, 인물에 대한 깊은 사유와 시대적 문제의식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왕안석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정치사상이나 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의 산문에 대한 연구도 묘지명의 문학적 구조보다는 역사적 가치와 사상적 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 인해, 그의 묘지명이 지닌 문체적 독창성과 서술 방식의 특이성,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왕안석은 생전에 수많은 묘지명을 남겼으며, 《임천문집(臨川文集)》 91권부터 100권까지 총 100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명나라 모곤(茅坤)이 편찬한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에는 4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묘지명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문학적성과 문체적 특징이 두드러진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논문은 《당송팔대가문초》에 수록된 왕안석의 묘지명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묘지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서술의 원칙과 문체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왕안석 묘지명이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사실성·사상성·감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양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밝히고, 동시에 송대 묘지명 문학의 발전 양상 속에서 왕안석의 글쓰기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왕안석 묘지명 서술의 원칙

묘지명은 단순히 죽은 이를 기리는 글이 아니라, 인물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그 공덕을 도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공적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체가 지닌 윤리적·역사적 책임감은

고대 이래로 비평가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 〈뇌비(誄碑)〉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문(碑文)을 창작할 때는 역사가로서의 재능이 요구된다. 그 서문은 전기(傳記)와 같고, 그 문장은 명(銘)과 같다. 그러므로 훌륭한 덕행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맑고 고결한 기풍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고, 위대한 공적을 기념하려면 반드시 숭고하고 장엄한 위엄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문의 원칙이다.⁴⁾

즉, 비지문(碑誌文)을 창작할 때는 역사가로서의 재능이 필요하며, 전기적 사실과 명문(銘文)의 문학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유협이 규정한 비지문은 고인의 생애와 공덕을 서술하는 문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묘지명은 그 하위 갈래 가운데 가장 정형화된 형식을 갖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협이 제시한 이상적 기준인 역사적 사실성, 도덕적 감화력, 문학적 표현성은 묘지명 창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덕행을 드러내는 데는 고결한 품격이, 위엄을 기리는 데는 숭고한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그의 설명은 묘지명이 단지 형식적 기념문이 아닌 진실과 감화를 겸비한 공적 기록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원칙을 실제 문장 속에서 구현해 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다. 그는 묘지명을 집필함에 있어, 당대 문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미사여구 중심의 찬양문적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서술과 도덕적 판단을 중시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고수하였다. 특히 전공보(錢公輔)에게 보낸 서간문 〈답전공보학사서(答錢公輔學士書)〉에는 그가 묘지명을 서술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태도 및 그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관철하고자 했는지 등이 잘 드러나 있다.⁵⁾ 그러므로 이 글은 유협이 주장한 비지문의 원칙인 역사적 사실성과 도덕적 감화

4) 劉勰 撰, 《文心雕龍》, “夫屬碑之體, 資乎史才, 其序則傳, 其文則銘, 標序盛德, 必見清風之華; 昭紀鴻懿, 必見峻偉之烈; 此碑之制也。”

5) 李貴銀, 《中國古代碑誌文批評史》, 中華書局, 2020, 143쪽 참고.

력을 현실의 글쓰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한 일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 서신의 서두이다.

근래에 묘지명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족하께서는 세상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로서, 현달한 사람이 지은 부모님의 묘지명을 얻을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마도 그 뜻이 소홀히 하지 않고자 하는데 있는 듯하여 그 때문에 즉시 지어 드리고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오히려 바라는 바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첨삭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글에는 나름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돌려드릴 테니, 족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아 다시 짓기를 바랍니다.⁶⁾

묘지명은 일정한 규범과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적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교육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왕안석은 <답전공보화사서>에서 이 같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묘지명을 과장이나 미화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도덕적 판단에 근거해 정직하게 서술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였으며, 사적인 기대나 요청에 따라 글을 고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전공보(1021~1072)는 송대의 시인이자 월주통판(越州通判), 강녕지부(江寧知府), 양주지주(揚州知州) 등의 벼슬을 지낸 문인 관료로, 왕안석에게 어머니의 묘지명⁷⁾을 부탁하였다. 왕안석은 이를 수락하고 글을 지었으나, 전공보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는 이미 자신의 판단이 담긴 글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고치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

6) 王安石 撰, 劉成國 點校, 《王安石文集》 第四册, 中華書局, 2021, 1296쪽. 이하 王安石, 《王安石文集》으로 표기한 출처는 모두 동일한 간행본임. “比蒙以銘文見屬。足下於世爲聞人, 力足以得顯者銘父母, 以屬於不腆之文, 似其意非苟然, 故輒爲之而不辭。不圖乃猶未副所欲, 欲有所增損。鄙文自有意義, 不可改也, 宜以見還, 而求能如足下意者爲之耳。”

7) 《王安石文集》 第五册, 1709쪽에 실려 있는 <영안현태군장씨묘지명(永安縣太君蔣氏墓誌銘)>이다.

는 일이라며 편지로 침삭을 거절하였다. 이를 통해 왕안석이 묘지명을 공적인 성격의 문장으로 인식하고, 형식적 엄정성과 도덕적 진실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서신을 바탕으로, 왕안석이 묘지명을 서술할 때 일관되게 지켰던 세 가지 서술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의 법으로 보자면, 족하께서는 아마도 가묘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족하께서 비록 아는 것이 많으시지만, 반드시 식견이 있는 자들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족하께서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통판(通判)이 된다 한들, 그 관청에 연못과 정자, 대나무 숲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한들, 이것이 태부인께 무슨 영광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굳이 기록하려 하십니까? 천자처럼 귀하고 천하의 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만일 도(道)를 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모의 부끄러움이 될 뿐입니다. 하물며 갑과에 급제하여 일개 통판이 되거나, 사부(辭賦)를 조금 지을 줄 아는 것은 저갓거리의 소인이라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 어찌 말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찌 말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묘지명에서 시골 선비들이 태부인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식견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기쁨과 슬픔, 영광과 치욕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태부인께서는 시골 선비들과는 달리, 천하의 식자들과 더불어 같으시니, 이것이 바로 현명하신 이유이며 묘지명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⁸⁾

첫째,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묘지명은 공적 책임을 지닌 기록물로, 유족의 사적인 의도나 감정이 사실성을

8) 王安石, 《王安石文集》第四冊, 1296-1297쪽. “家廟以今法準之, 恐足下未得立也。足下雖多聞, 要與識者講之。如得甲科爲通判, 通判之署有池臺竹林之勝, 此何足以爲太夫人之榮, 而必欲書之乎? 貴爲天子, 富有天下, 苟不能行道, 適足以爲父母之羞。況一甲科通判, 苟粗知爲辭賦, 雖市井小人皆可以得之, 何足道哉! 何足道哉! 故銘以謂閭巷之士, 以爲太夫人榮, 明天下有識者不以置悲歡榮辱於其心也。太夫人能異於閭巷之士, 而與天下有識同, 此其所以爲賢而宜銘者也。”

훼손하는 일은 철저히 경계되어야 한다.

왕안석은 전공보가 부모를 위한 가묘를 세운 사실을 묘지명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금의 법으로 보자면, 족하께서는 가묘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家廟以今法準之, 恐足下未得立也)”라고 지적하며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는 법적 근거 없이 부모를 미화하거나 격상시키려는 시도를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왕안석은 묘지명에 개인적 감정이나 체면을 위한 장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공공의 기준에 따라 써야 한다는 인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이는 감정보다 사실, 사사로움보다 공공의 책임을 중시하는 그의 서술 태도를 잘 보여준다.

둘째, 역사적 기록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묘지명은 망자의 생애와 업적을 사실에 입각해 기술하는 역사적 기록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은 피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전공보는 어머니의 묘지명에 자신이 진사시에 급제하여 월주통판이 되었고, 관서에 연못과 정자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이를 어머니의 영예로 여겼지만, 왕안석은 관직이나 세속적 성취를 부모의 명예로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영안현태군장씨묘지명(永安縣太君蔣氏墓誌銘)〉에서 “시골 선비들이 태부인을 영광스럽게 여겼으나, 집안 사람들은 태부인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里巷之士以爲太君榮, 而家人卒亦不見其喜焉)”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태부인이 세속적 영예에 연연하지 않고, 절제된 삶을 실천했던 인물이었음을 드러낸다. 왕안석은 묘지명을 통해 외형보다 내면의 덕을 강조하고,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고자 했다.

손자들에 관해서도 또한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 다섯 아들에 일곱 손자가 없겠습니까? 일곱 손자 가운데 기록할 만한 업적이 있는 이가 있다면, 본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두 어린 아이여서 현명하지 어리석은지 아직 알 수 없다면, 그들을 나열하는 것이 어찌 도리에 합당하

겠습니까? 자세히 서술되지 않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족하께서 마땅히 식견이 있는 자들과 상의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쪽으로 떠나가시어 더욱 멀어졌으니, 군자께서는 오직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랍니다.⁹⁾

셋째, 형식을 갖추되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묘지명은 일정한 문체적·형식적 규칙에 따라 서술되어야 하며, 후세가 본받을 만한 삶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이는 연대기적 구조, 사실 중심의 기술, 절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묘지명 서술 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왕안석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장식적 수사나 과도한 감정을 경계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인 구성을 지향하였다.

〈답전공보학사서〉에서 비록 형식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손자들의 이름을 나열해 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 대목에서도 형식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인품이나 업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손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열거하는 것은 전통적인 묘지명의 서술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문장의 간결성과 구조적 정돈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거절은 문체적 원칙에 충실한 태도로 이해된다. 왕안석은 묘지명이 전달하는 감정과 사실이 형식 안에서 질서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문학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기록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묘지명을 후세를 위한 교훈적 기록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은 망자의 삶과 인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가 본받을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는 “누구인들 다섯 아들에 일곱 손자가 없겠습니까?…… 그들을 나열하는 것이 어찌 도리에 합당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인품과 행적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을 성급히 기록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며, 후세에 교훈을 주기 어렵다고 보

9) 王安石, 〈王安石文集〉第四冊, 1297쪽. “至於諸孫, 亦不足列。孰有五子而無七孫者乎? 七孫業之有可道, 固不宜略; 若皆兒童, 賢不肖未可知, 列之於義何當也? 諸不具道, 計足下當與有識者講之。南去愈遠, 君子惟順愛自重。”

았다.

왕안석에게 묘지명은 단순히 후손을 기념하거나 가족사를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정연한 형식 속에 공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서사적 기록물이었다. 이는 묘지명을 사실에 근거한 공적인 기록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후세에 도덕적 의미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서술 철학을 잘 보여 준다.

Ⅲ. 왕안석 묘지명의 문체적 특징과 표현 기법

1. 구성의 독창성

묘지명은 전통적으로 정해진 형식을 따른다. 출생부터 관직, 행적, 덕목, 가족, 장례에 이르기까지, 그 서술 순서는 일정하게 정형화되어 있다. 당·송 이래 이러한 정형화된 배열은 추모의 예절을 갖추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인물의 개성과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구성의 관습은 문학적 창의성을 억누르는 틀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왕안석은 이 틀을 흔들었다. 그는 인물의 정신, 시대의 긴장, 정치적 판단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중심에 두고 묘지명의 구성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이에 대해 모곤은 이렇게 평하였다.

세상에서 한유의 문장을 논하는 자들은 모두 그의 비지문을 으뜸으로 치지만, 나는 홀로 한공[韓愈]의 비지문이 기이하고 험준하여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의 서술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문체의 풍격과 기세에서 힘차고 자유분방한 기운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며, 나는 간혹 이러한 점을 그 옆에 새겨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구양공[歐陽脩]의 비지문은 홀로 사마천[司馬遷]의 정수를 온전히 얻었다고 할 만하다. 왕형공[王安石]은 또 다른 독창적인 문체를 창출하였으니 세밀하게 음미할 가

치가 있다.¹⁰⁾

모곤은 이와 같이 비지문 전반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유·구양수·왕안석의 문체적 경향과 서술 방식을 비교하였다. 그는 한유의 비지문에 대해 문장 자체는 기이하고 험준하며 변화무쌍하다고 평하면서도, 《사기》나 《한서》가 보여준 연대기적·논리적 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두 사서는 사건을 시대적 맥락 속에 배열하며 인물의 기개와 정신을 드러내는 힘찬 서사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모곤은 한유가 이러한 구성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한유의 문장이 강한 개성과 감각적 표현을 지녔음에도, 지나치게 변화가 많아 구조적 정돈과 서사적 체계성이 약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구양수는 사마천의 서사 정신을 계승하여 사건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면서도 인물과 시대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왕안석의 비지문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 그는 한유처럼 변화무쌍하지 않으면서도 구양수처럼 정형적 배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흐름 속에 생동감 있는 장면과 의미 있는 전환점을 배치하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구성을 창출하였다. 모곤이 “또 다른 독창적인 문체를 창출하였다.(又別出一調)”고 평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틀을 변형하여 인물의 사상과 시대 의식을 중심에 둔 다층적 서사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모곤은 이 평가를 더욱 구체화하며 구양수와 왕안석의 문장 구성 방식을 직접 대비하였다. 그는 구양수가 사마천의 서술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여 사실 중심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구성을 완성했다고 보았다. 반면 왕안석은 사건 전개 곳곳에 생동감 있는 묘사를 더해 서사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이끌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사실 전달을 넘어 독자에게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개성을

10) 茅坤 編, 《唐宋八大家文鈔·論例》. “世之論韓文者, 共首稱碑誌. 予獨以韓公碑誌多奇崛險譎, 不得史、漢序事法, 故於風神處或少滄逸, 予間亦鐫記其旁. 至於歐陽公碑誌之文, 可謂獨得史遷之髓矣. 王荊公則又別出一調, 當細釋之.”

지낸다.

구양공은 가장 뛰어난 것이 묘지명과 묘표였다. 그의 문장 전개 방식은 대개 사마천의 뛰어난 문풍을 많이 따랐으며, 이는 당 이후의 학사 대부분이 미치지 못한 바였다. 반면에 왕형공만은 홀로 독창적인 구성을 이루었으며, 거칠고 변화무쌍한 문장을 많이 구사하였다. 그의 글에서 특히 뛰어난 점은 사건을 서술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생동감 있게 채색하듯 묘사를 덧붙여, 그 정취가 멀리까지 깊이 스며들게 한다는 점이다. 독자가 그의 글을 읽으면 마치 준마를 타고 첩첩이 쌓인 산과 깊은 계곡을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첩첩이 겹쳐진 산봉우리가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져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사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번뜩이는 검과 창과도 같다.¹¹⁾

모론은 구양수가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며 정제된 문체를 구현한 것과 달리, 왕안석은 사건의 전개 속에 장면을 그림처럼 덧입히는 방식으로 서사의 입체감과 감각적 몰입을 극대화했다고 보았다. 그는 왕안석의 묘지명을 가리켜 “사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번뜩이는 검과 창과도 같다. (序事中之劍戟也)”고 평했는데, 이는 사실 중심의 서술 속에서도 문장이 긴장과 리듬을 지니며 역동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왕안석의 구성 방식은 전통적으로 고정된 서사 형식을 따르면서도 사건 전개 속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묘지명이라는 장르가 지닌 형식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단순한 문체 실험에 그치지 않고, 묘지명의 서사 구조와 표현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구성의 독창성’을 뚜렷하게 구현하였다.

독창적인 구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묘지명은 바로 <태상박사증공 묘지명(太常博士曾公墓誌銘)>이다. 이 글은 전통적인 전기적 배열을 따르지 않고, 증역점(曾易占)의 사상과 정치적 신념을 중심에 두어 서사를 재

11) 茅坤 編, 《唐宋八大家文鈔》 91卷. “歐陽公最長於墓誌、表, 以其序事處往往多太史公逸調, 唐以來學士大夫所不及者. 而王荊公獨自出機軸, 多巉畫曲折之言. 其尤長者, 往往於序事中一面點綴著色, 雋永遠出, 令人覽之如走駿馬於千山萬壑之中, 而層巒疊嶂, 應接不暇, 序事中之劍戟也.”

구성함으로써, 묘지명 형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한 작품이다.

신주를 다스리던 전선지(錢仙芝)라는 자가 옥산현령(玉山縣令)인 공에게 어떤 일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공을 무고(誣告)하였다. 관리가 이 일을 조사하면서 공을 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자, 전선지는 어사로 내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전선지는 믿고 의지할만한 자들이 있었던 듯하였고, 그래서 비록 그가 공을 무고한 죄로 처벌을 받긴 했지만, 공 또한 결국 박사의 자리를 잃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 12년이었다. 다시 경사로 가던 중 남경에 이르러 병을 얻어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¹²⁾

증역점은 증공(曾鞏)의 아버지로, 청렴하고 강직했으며 개혁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다. 왕안석은 그의 생애를 서술함에 있어 인물의 신념과 감정, 그리고 삶의 결정적 전환점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구성을 구현하였다.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그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부조리를 함께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묘지명보다 훨씬 역동적인 서사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증역점이 억울하게 관직을 잃게 된 사건을 다룬 대목에서는 왕안석의 문체적 절제와 구성의 치밀함이 두드러진다. 그는 증역점이 청을 거절하자 곧바로 무고당하는 과정을 “공이 거절하니, 곧 무고하였다.(公不與, 即誣公)”라는 여섯 글자의 짧은 문장으로 처리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단번에 제시하고 극적인 긴장을 부여한다. 또한 ‘무고→조사→무고자 처벌’이라는 핵심 구도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억울함의 구조를 독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든다. 특히 전선지가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은 수사를 배제한 채 권력 암투의 분위기

12) 王安石, 《王安石文集》第五冊, 1603쪽. “知信州錢仙芝者, 有所丐於玉山, 公不與, 即誣公。吏治之, 得所以誣公者, 仙芝則請出御史。當是時, 仙芝蓋有所挾, 故雖坐誣公抵罪, 而公亦卒失博士, 歸不仕者十二年。復如京師, 至南京病, 遂卒。”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독자로 하여금 당대 정치 현실의 부조리를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내용 구성 측면에서도 이 대목은 억울한 사건의 서사 구조를 정밀하게 드러낸다. 전선지는 처벌을 받았지만, 증역점 또한 박사의 벼슬을 잃고 12년간 은거한 채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그는 단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자로 그려진다. 표면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왕안식은 날카롭게 포착해 낸다. 이어지는 서술에서 정치적 실각 이후 장기적인 은거 생활, 그리고 병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정치적 억울함이 한 개인의 생애 전체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서사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왕안식은 절제된 문장 속에 불의한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되, 감정의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판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구성은 모곤이 “증역점은 관직 생활이 험난했으나, 형공이 이를 점차적으로 드러내면서 생동감을 더했다.(曾易占歷宦坎坷，而荆公點次有生色)”고 평한 바와 같이, 험난한 삶을 생동감 있게 재구성한 왕안식의 문체적 독창성을 잘 보여준다.

2. 허경(虛景)을 차용한 감정의 진실성

왕안식의 묘지명은 일반적으로 도(道)의 실현, 시대의 비판, 인물의 평가 등에서 의론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로 알려져 있다. 그의 글은 도덕적 인물 평가와 함께 당대의 가치관과 현실을 반성하는 논설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사유의 구조 속에서도 죽은 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상실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까운 혈육이나 오랜 벼슬 잃은 경우, 왕안식 특유의 절제된 문체 속에서도 감정의 곁이 뚜렷이 드러나며, 묘지명이 인물 평가나 시대 비평을 넘어 인간적 정서를 담은 서사로 확장된다.

왕안식은 개인적으로 남겨진 감정의 공백이나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깊고 섬세하게 드러낸다. 이는 전통적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의 진실성과 인간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문학적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활용해 감정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문체적 특징을 지닌다.¹³⁾ 이러한 감정 표현은 대체로 절제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허경(虛景)’의 활용이다.

모곤은 왕안석의 묘지명에 대해 “虛景相感慨”, 즉 “허경을 통해 감회를 표현하였다.”고 평한 바 있다. 여기서 ‘허경’이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경치’를 의미하며, 현실의 구체적 장면이나 인물의 행동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철학적 관념과 상징적 이미지, 추상적 사유를 중심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왕안석은 허경을 통해 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결핍된 서술 공간을 감정과 사유로 채움으로써 더 깊은 정서적 여운과 문학적 밀도를 획득한다.

허경적 서술은 독자에게 특정한 장면을 ‘보게’ 하기보다는 그 장면을 둘러싼 정서와 사유를 함께 ‘느끼게’ 하도록 유도한다. 슬픔이나 탄식, 회한과 같은 감정이 격정적으로 분출되기보다는 절제된 언어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의 유한함과 시대의 모순을 사유하게 만든다. 감정이 직접 형상화되지 않기에 해석과 상상을 유도하고, 완결되지 않은 정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비극미와 깊은 여운을 형성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왕안석의 묘지명은 철학적 언어 속에 감정을 스며들게 함으로써 문체의 절제와 감정의 진실성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성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망형왕상보묘지명(亡兄王常甫墓誌銘)>과 <왕봉원묘지명(王逢原墓誌銘)>에서 가장 밀도 있게 구현된다. 두 작품은 형상보다 사유, 서사보다 여운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문체적으로 성취해 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먼저 <망형왕상보묘지명>을 통해 절제된 문체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李貴銀, 《中國古代碑誌文批評史》, 中華書局, 2020, 218쪽.

아아! 선생의 도덕은 몸에 축적되었고 집안에 이를 베풀었으나, 천하에 널리 드러나지 않았다. 문장은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다만 세상의 필요에 응하였을 뿐이다. 큰 뜻으로 논하고 저술하고자 한 바는 모두 드러내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글에 능하여 불후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들도, 또한 선생을 깊이 알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아아! 선생이 간직해 온 것들을 전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가? 애초에 선생은 항상 공과 명예는 품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겼으니, 아마도 그것도 운명이었던 것이다. 군자의 학문은 그 천성을 다할 뿐이다. 그렇다면 선생이 전하지 못한 것이 아마도 한 스러울 것은 아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의 효성과 우애는 가장 두터워 백세가 지나도 중히 여길 만하데, 그것을 전할 곳이 없었다. 어머니와 아우들이 있었지만, 한창 장성했을 때 그를 빼앗아 가 오래 함께 지낼 수 없게 하였다. 만약 선생께서 지금도 알고 계신다면, 그 근심이 끝이 없으실 것이다. 아아! 지난 일을 미루어 지금을 생각하면, 이 슬픔은 남아있는 나 때문인가, 아니면 돌아가신 선생 때문인가? 선생은 문집 15권을 남겨서, 그 아우가 이미 그것을 차례대로 편찬하여 집에 간직하고, 또 덕행과 치적을 차례로 엮어 묘지를 지어 무덤에 함께 묻었다. 아아! 가혹하다. 극심하다! 이 명문은 여기서 멈추지만, 과연 이 글이 선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는가?¹⁴⁾

왕안석의 묘지명 가운데 〈망형왕상보묘지명〉은 감정 표현의 진실성과 강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요절한 형 왕상보를 애도하는 내용으로, 형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전하지 못한 뜻에 대한 슬픔이 거침없이 드러난다. 왕안석은 형의 죽음을 가족의 상실로 한정하지 않고, 한 인재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잊힌 현실에 대한 깊은

14) 王安石, 《王安石文集》第五冊, 1651-1652쪽. “嗚呼! 先生之道德, 蓄於身而施於家, 不博見於天下. 文章名於世, 特以應世之須爾. 大志所欲論著, 蓋未出也. 而世之工言能使不朽者, 又知先生莫能深. 嗚呼! 先生之所存, 其卒於無傳耶? 始先生常以爲功與名不足懷, 蓋亦有命焉. 君子之學, 盡其性而已. 然則先生之無傳, 蓋不憾也. 雖然, 先生孝友最隆, 委百世之重, 而無所屬以傳. 有母有弟, 方壯而奪之, 使不得相處以久. 先生尚有知, 其無窮憂矣. 嗚呼! 以往而推存, 痛其有已邪? 痛其有已邪? 先生有文十五卷, 其弟既次以藏其家, 又次行治藏於墓. 嗚呼! 酷矣, 極矣! 銘止矣, 其能使先生傳邪?”

탄식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이 글은 ‘허경’ 중심의 구성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특징이 뚜렷하다. 왕안석은 형의 생전 행적이나 공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삶의 무상함과 운명의 불공정함, 글로써도 담아내지 못하는 진가, 남겨진 자의 무력감 같은 정서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이러한 점을 모곤은 “형공은 자신의 형 상보가 재능을 갖추었음에도 불우하였다고 여겨, 그러므로 이 글에서 특히 허경을 통해 감회를 표현하였으며,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슬픔의 여운을 남기게 한다.(荆公以兄常甫才而不遇, 故特於文章虛景相感慨, 令人讀之而有餘悲)”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감정의 직접적 분출이 아니라 사유와 탄식을 담은 허경적 언어가 깊은 정서적 울림을 형성함을 정확히 짚어낸 평가이다.

형의 덕행은 개인과 가족에게 축적되었으나, 세상에는 널리 드러나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며 왕안석은 이 점을 깊이 탄식한다. 그는 겉으로는 조용한 삶을 살았던 형의 모습을 세속적 명성과 무관한 진정한 도덕의 실천자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런 인물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한 현실은 글 전체에 깊은 회한으로 스며든다. 이런 정서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더욱 절제되고 담담한 언어로 드러난다. “선생이 간직해 온 것들을 전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가?(先生之所存, 其卒於無傳耶)”의 구절은 형의 재능과 뜻이 끝내 전해지지 못한 상실을 담담하면서도 울림 있게 표현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왕안석은 묘지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물을 기리면서도, 글로써 죽은 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서술 속에 드러낸다. “이 명문은 여기서 멈추지만, 과연 이 글이 선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는가?(銘止矣, 其能使先生傳邪)”라는 물음은 글쓰기의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깊은 탄식이다. 이는 추모를 넘어 문학이 인간의 감정과 삶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태도로 읽힌다.

특히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감정의 정점은 형의 죽음이 남긴 심리적 공백과 이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이 슬픔은 남아있는

나 때문인가, 아니면 돌아가신 선생 때문인가?(痛其有已邪? 痛其有已邪)”라는 문장은 형의 요절을 애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내적 갈등을 담아낸다. 이러한 감정은 외부로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 수렴되며, 철학적 질문의 형태로 내면화되어 절제된 비애를 형성한다.

이 묘지명은 전통적 격식을 유지하면서도 ‘허경’을 통해 감정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낸다. 모곤이 “허경을 통해 감회를 표현하였다.”고 평했듯, 직접적인 묘사 대신 사유로 감정을 스며들게 하여 깊은 울림을 준다. 왕안석의 글은 절제된 언어 속에서 인간적 정서를 전달하며, 묘지명이 지닌 문학적 가능성을 한층 확장시킨다.

〈망형왕상묘묘지명〉이 허경적 언어 안에서도 감정의 진솔함과 강도가 특히 두드러진다면, 〈왕봉원묘지명〉은 보다 절제되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아아! 도가 밝혀지지 않는 것이 어찌 다만 교화가 미치지 않아서만 이겠는가? 선비 또한 죄가 있다. 아아!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 어찌 다만 교화가 미치지 않아서만 이겠는가? 선비 또한 죄가 있는 것이다. 대저 일정한 생업은 없으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옛날의 선비이다. 선비가 진실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성인의 말씀을 지키고 이를 힘써 행한다면, 도가 비록 천하에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자기에게는 밝을 것이고, 도가 비록 천하에 행해지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아내와 자식에게는 행해질 것이다.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도가 밝혀지고, 밖으로는 그것이 아내와 자식에게 행해진다면, 그 말과 행실은 반드시 천하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孔子), 맹자(孟子), 백이(伯夷), 유하혜(柳下惠), 양웅(揚雄) 같은 분들이 세상에 공을 세운 바이다. 아아! 나는 어리석고 나약하고 못난 자로서, 참으로 선비로서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이와 같은 벼이 있었다. 내 친구의 자는 봉원이고, 휘은 령(令), 성은 왕(王) 씨이며 광릉(廣陵) 사람이다. 처음에는 내가 그의 문장을 사랑하여, 그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고, 중간에는 그의 절조와 행실을 사랑하여, 그가 행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끝내 나는 그의 말의 본질을 얻었는데, 그것은 크고 넓어서 따라가려 해도 다함이 없었고, 그의

행실의 본질을 얻었는데, 그것은 높고 뛰어나서 좇으려 해도 이를 수가 없었다. 이에 개연히 탄식하면서, 세상의 중대한 책임을 맡고 천하에 공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장차 여기에 있으리라 여겼고, 나는 그를 벗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아! 이제 나를 버리고 죽었으니, 슬프도다!¹⁵⁾

왕안석의 묘지명에서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철학적 사유와 상징적 언어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왕봉원묘지명>은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글의 서두는 벗의 죽음을 곧바로 애도하기보다, 도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탄으로 시작한다. 왕안석은 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선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문을 통해 유가적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반성한다. 여기서 ‘도’는 특정 개인의 품행을 넘어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가리키며, 시대의 한계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지 못한 선비 개인의 책임까지 포함한다.

그 성찰은 자연스럽게 왕봉원의 삶과 연결된다. 그는 명예나 관직보다 도덕적 실천을 삶의 중심에 둔 인물로 그려진다. 왕안석은 “일정한 생업은 없으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가 곧 옛날의 선비이다.(蓋無常產而有常心者, 古之所謂士也)”라는 구절을 통해, 물질적 기반 없이도 도덕적 의지를 견지하는 이상적 선비상을 제시하며 왕봉원을 그러한 인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런 인물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요절한 현실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도덕이 외면 받는 시대의 단면을 드러낸다. 이를 지켜보는 선

15) 王安石, 《王安石文集》第五冊, 1669-1670쪽. “嗚呼! 道之不明邪, 豈特教之不至也, 士亦有罪焉。嗚呼! 道之不行邪, 豈特化之不至也, 士亦有罪焉。蓋無常產而有常心者, 古之所謂士也。士誠有常心, 以操聖人之說而力行之, 則道雖不明乎天下, 必明於己; 道雖不行於天下, 必行於妻子。內有以明於己, 外有以行於妻子, 則其言行必不孤立於天下矣。此孔子、孟子、伯夷、柳下惠、揚雄之徒所以有功於世也。嗚呼! 以予之昏弱不肖, 固亦士之有罪者, 而得友焉。余友字逢原, 諱令, 姓王氏, 廣陵人也。始予愛其文章, 而得其所以言; 中予愛其節行, 而得其所以行; 卒予得其所以言, 浩浩乎其將沿而不窮也; 得其所以行, 超超乎其將追而不至也。於是慨然歎, 以爲可以任世之重而有功於天下者, 將在於此, 余將友之而不得也。嗚呼! 今棄予而死矣, 悲夫!”

비로서의 왕안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지식인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글의 중반에 이르러 감정은 본격적으로 내면화되어 표현된다. 왕안석은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한 선비로서 죄가 있다고 고백하며, 친구의 죽음을 외부의 탓이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애도의 감정은 외부로 향한 탄식에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으로 전환되며 감정의 밀도를 한층 심화시킨다.

이런 흐름은 글의 말미에서 정서의 절정에 이른다. 왕안석은 “이제 나를 버리고 죽었으니, 슬프도다!(今棄予而死矣, 悲夫)”라는 탄식을 통해 격정적인 언어나 감정의 폭발 없이도 깊은 상실감과 애절함을 절제된 표현 속에 담아낸다. 이 표현은 슬픔을 넘어, 함께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과 남겨진 자의 공허감까지 포괄하며 감정의 잔상을 길게 남긴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강한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 글에 왕봉원의 생애나 구체적 행적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모곤이 “전편에 사실적 사건은 없고, 오직 허경을 통해 감회를 표현하였다.(通篇無事蹟, 獨以虛景相感慨)”라고 평한 것처럼, 이 글은 전형적인 ‘허경 중심의 감정 서술’ 구조를 따른다. 왕안석은 왕봉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정신적 존재감과 상실의 무게를 더 넓고 깊은 보편성 속에 담아낸다.

3. 의론을 통한 비판적 성찰

서사증은 《문체명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묘지명의 형식에는 정체(正體)와 변체(變體)의 두 가지가 있다. 정체는 오직 사실만을 서술하는 것이고, 변체는 사실을 서술하면서도 의론을 덧붙이는 것이다.¹⁶⁾

16) 徐師曾, 《文體明辨》三卷, 昨晟社, 1984, 448쪽. “其爲文則有正變二體, 正體唯敘事實, 變體則因敘事而加議論焉。”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 볼 때, 왕안석의 묘지명은 이른바 ‘변체’에 해당하는 글쓰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물의 삶을 매개로 당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 인재 등용 제도의 결함, 도덕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유려하게 풀어낸다. 이는 사실 서술과 의론을 능숙하게 결합한 서사 양식으로서, ‘정체’를 넘어선 문학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모곤 역시 왕안석의 묘지명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왕안석의 비지문이나 묘지명, 그리고 다른 글들 속에서 여러 시대의 명신이나 고관, 어진 인물과 지사들을 언급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한마디를 덧붙이거나 한 글자를 빼는 것조차 모두 심오한 통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가운데 풍자와 비평이 섞여 있는 것이, 마치 바람을 타고 훨훨 나는 새와 같다고 여겼으니, 《사기》나 《한서》와는 또 다른, 그만의 독자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¹⁷⁾

이 평가는 왕안석 묘지명이 당대의 관습적 형식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통찰과 풍자적 비판을 담아낸 독자적 문학 세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풍자와 비평[風刺]”이라는 표현은 그의 문장이 사실에 의론을 더하는 방식으로, 시대 현실을 진단하고 성찰하는 비판적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서사증이 말한 ‘변체’의 전형과도 맞닿아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의론적 서술’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몇 편의 묘지명을 중심으로, 왕안석이 어떻게 기록을 넘어선 사유의 글쓰기를 구현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당대 제도와 가치관에 어떤 비판적 문제의식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숙부임천왕군묘지명(叔父臨川王君墓誌銘)>이다.

대저 그가 부모를 섬기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비록 지극한 경지에는 미

17) 茅坤 編, 《唐宋八大家文鈔》 81卷 〈臨川文鈔引〉. “予每讀其碑誌、墓銘, 及他書所指次世之名臣碩卿, 賢人志士, 一言之予, 一字之奪, 並從神解中點綴風刺, 翩翩乎凌風之翻矣, 於史、漢外, 別爲三昧也。”

치지 못했더라도, 또한 유감이 없었다고 할 만하다. 교육과 인재를 천거하는 법이 무너진 이래로, 국가의 의론이 집 안에 은거하는 현인의 임용에는 미치지 못하여, 근본을 힘쓰는 선비는 늘 걸만 화려하고 천박한 재주를 가진 자에게 밀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숙부께서 서른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동안 여러 차례 진사과에 응시하였으나, 녹봉을 받아 단 하루라도 부양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여유조차 누리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선비를 논함에 있어, 구차하게 곤란함을 무릅쓰는 자를 어진 이라 여기니, 나의 숙부의 효행은 옛 사람들의 법도에 맞는 행실보다 더 뛰어난 특이함이 없었기에 세상에서 그 행실을 칭송한 이도 또한 드물었다. 대저 숙부께서 스스로 행한 것을 보자면, 외부로부터 오는 평가에 대해 내가 관여할 뜻은 없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한 사람이 관직을 얻지 못하여 명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범한 재능을 가진 자가 무엇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는가! 슬프도다!¹⁸⁾

모곤은 이 글에 대해 “증공과 왕안석의 묘지명에는 자주 의론을 섞어 사실 서술의 문장을 이끌어나가며, 그 중에서도 왕안석이 특히 심하여, 깊이 사유하고 공들여 새긴 글귀가 많다. 그러나 《사기》나 《한서》의 필법은 아니다.(曾、王誌墓, 數以議論行叙事之文, 而王爲甚, 多鑿思刻書處, 然非史、漢法矣)”라고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왕안석 묘지명이 당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담은 ‘의론적 서술’의 전형임을 잘 보여준다.

〈숙부임친왕군묘지명〉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진다. 왕안석은 숙부의 효행이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 평가하며, 외적 명예보다 개인의 실천을 중시하는 유가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그는 이를 단초 삼아 당시 사회의 인재 등용 제도와 가

18) 王安石, 《王安石文集》第五冊, 1611-1612쪽. “夫其所以事親能如此, 雖有不至, 其亦可以無憾矣。自庠序聘舉之法壞, 而國論不及乎閭門之隱, 士之務本者, 常詘於浮華淺薄之才。故余叔父之卒, 年三十七, 數以進士試於有司, 而猶不得祿賜以寬一日之養焉。而世之論士也, 以苟難爲賢, 而余叔父之孝, 又未有以過古之中制也, 以故世之稱其行者亦少焉。蓋以叔父自爲, 則由外至者, 吾無意於其間可也。自君子之在勢者觀之, 使爲善者不得職而無以成名, 則中材何以勉焉? 悲夫!”

치 기준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나아간다. 전통적인 교육과 천거 체계가 무너진 결과, 도덕적 본질을 추구하는 인물은 오히려 화려하고 천박한 재주를 지닌 이들에게 밀려나는 현실을 지적한다.

왕안석은 숙부가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생계를 유지할 여유조차 없이 생을 마감한 사실을 통해,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이 도덕적 인물을 배제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선한 이를 기용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보고 스스로를 닦겠는가라는 반어적 물음은, 인재 등용 기준의 붕괴가 공동체의 도덕성과 동력을 위협함을 경고한다.

〈태주해릉현주부허군묘지명(泰州海陵縣主簿許君墓誌銘)〉도 허평(許平)이라는 인물을 통해, 왕안석이 당대 사회에서 인재가 발탁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위 높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말하기를 군은 큰 재능을 가졌으니, 일로써 시험해 볼 수 있으며, 지방 관직에 버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군 또한 늘 개인히 스스로를 인정하여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으나, 끝내 그 지략과 능력을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세상을 마쳤다. 아아!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다. 선비란 본래 세속과 동떨어져 살며 세상과 다른 뜻을 지니고, 자기 뜻대로 홀로 행하며,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핍박과 모욕을 받아도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대중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후세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자들이니, 그 뜻이 맞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대저 지혜와 책략이 있으며 공명을 추구하는 선비 중에서도, 때를 살피고 몸을 굽혔다 세우며, 세상의 흐름에 맞추려 하지만, 그림에도 번번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실로 셀 수 없이 많다. 언변은 만물을 움직일 만큼 충분하였으나, 설득하는 자리에 이르면 오히려 곤궁에 처하고, 계획이 삼군을 제압할 만큼 충분하였으나, 무공을 숭상하는 나라에서는 도리어 모욕을 당하였으니, 이 또한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¹⁹⁾

19) 王安石, 《王安石文集》 第五册, 1648쪽. “貴人多薦君有大材, 可試以事, 不宜棄之州縣。君亦常慨然自許, 欲有所爲, 然終不得一用其智能以卒。噫! 其可哀也已。士固有離世異俗, 獨行其意, 罵譏笑侮, 困辱而不悔。彼皆無衆人之求,

〈태주해릉현주부허군묘지명〉에서 왕안석은 허평의 불우한 삶을 통해 당대 인재 등용의 왜곡된 구조와 도덕적 혼란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허평이 여러 고위 인사들에게 재능을 인정받고도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한 비극을 지적하며, 개인의 좌절이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왕안석은 세속과 불화하며 고결한 뜻을 지킨 인물들의 좌절이 예견된 현실을 제시하는 한편, 시대에 맞춰 처세한 자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인재 등용 실패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언변과 계획이 뛰어난 이들이 오히려 모욕당하는 현실을 강한 반어로 개탄하며, 인재 평가의 실패를 넘어 현실 정치의 무능과 가치 전도의 문제를 고발한다.

모론은 “허군은 매우 특이하고 개성적인 기질을 지녔으며, 형공이 쓴 그의 묘지명 역시 그와 같은 기운을 띠고 있다.(許君多奇氣，而荆公之誌亦如之)”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왕안석이 허평의 개성과 기질을 절제된 감정과 깊은 사유로 담아내며, 인물의 삶을 넘어 사회 구조를 성찰한 ‘의론적 서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태주해릉현주부허군묘지명〉의 의론적 서술 방식과 깊은 사유는 후대 문인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청대 동성파(桐城派) 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²⁰⁾ 이들은 왕안석이 인물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 제도의 병폐와 가치 전도의 문제를 명확히 비판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간결한 서사 속에 돌연 삽입되는 강렬한 의론과 이를 통해 작가의 감정과 판단이 서술 전반을 관통하는 구성 방식은 동성파 문인들이 지향한 고문(古文)의 모범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왕안석이 보여준 감정의 절제, 통찰력 있는 현실 비판, 그리고 개

而有所待於後世者也，其齟齬固宜。若夫智謀功名之士，窺時俯仰，以赴勢物之會，而輒不遇者，乃亦不可勝數。辯足以移萬物，而窮於用說之時；謀足以奪三軍，而辱於右武之國，此又何說哉？”

20) 周遊, 〈晚清桐城派中的王安石文風——兼談〈秦州海陵縣主簿許君墓誌銘〉的意義〉, 《文學遺產》 2018, 121쪽.

인의 삶을 넘어 시대와 제도를 성찰하는 깊이는 동성과 문인들이 추구한 문장의 정신성과 완성도의 표본으로 평가되었다. 이 글은 당대의 구조적 결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문학적 표현의 가능성과 기능을 새롭게 정의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며, 후대 묘지명 문학의 전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IV. 결론

본 연구는 송대 문학의 대표적 문인 왕안석의 묘지명을 대상으로, 그가 구현한 서술 원칙과 문체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묘지명이라는 문체의 문학적·사상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전통적으로 묘지명은 고인의 생애와 덕행을 기리는 기념문 성격이 강했으나, 당송 시기를 거치며 문학적 양식으로 정체되었고, 송대에는 문체 개혁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왕안석은 형식적 계승을 넘어서 묘지명을 공적 기록물로 인식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서술을 지향했다. <답전공보학사서>에서 확인되듯, 그는 묘지명에서 감정적 미화나 사적 요구를 배제하고, 사실성·형식성·교훈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묘지명이 후대에 도덕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적 기록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왕안석의 묘지명은 문체적 측면에서도 독창성을 드러낸다. 그는 전통적인 연대기적 배열을 벗어나 인물의 정신과 사상, 시대의 문체의식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태상박사증공묘지명>에서는 권력 구조의 부조리와 인물의 정치적 신념을 간결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서사로 드러냈으며, 절제된 언어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효과를 추구했다.

그는 또한 ‘허경’이라는 간접적 표현 방식을 활용해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했다. <망형왕상보묘지명>과 <왕봉원묘지명>에서는 남겨진 자의 상실감과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적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는 감정의 절제가 곧 감정의 부재가 아님을 보여주며, 오히려 독자의 사유를 자극하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했다.

마지막으로, 왕안석의 묘지명은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당대 정치 제도와 도덕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았다. 〈숙부임천왕군묘지명〉과 〈태주해릉현주부허군묘지명〉에서 보이듯, 그는 개인의 불운을 제도적 모순과 연결하여 서술하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론적 서술은 묘지명이 지닌 공적 기록물로서의 성격을 한층 확장시켰다.

결론적으로 왕안석의 묘지명은 사실성, 형식성, 교훈성을 토대로 공적 기록물로서의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성의 혁신과 감정의 진실성, 비판적 사유를 결합하여 문학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송대 산문문학의 발전과 묘지명 문체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후대 문장가들에게도 중요한 기준과 영감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이러한 왕안석 묘지명의 특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송대 산문문학의 다층성과 묘지명 장르의 문학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나아가 본 연구를 기점으로, 왕안석 묘지명을 비롯하여 비지문 전반에 걸친 심층 분석과 후속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신용호, 허호구, 〈(譯註)唐宋八大家文抄·王安石〉, 전통문화연구회, 2010.
- 오헌필, 〈왕안석의 비지문(碑誌文) 연구 -주체의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13권, 1997.
- 유협 지음, 최동호 역편, 《문심조룡》, 민음사, 1994.
- 진필상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문제론》, 이회문화사, 1995.
- 高克勤, 《王安石與北宋文學研究》,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6.
- 李貴銀, 《中國古代碑誌文批評史》, 中華書局, 2020.

劉成國 點校, 王安石 撰, 《王安石文集》, 中華書局, 2021.

劉勰 撰, 《文心雕龍》, 四庫全書本, 北京大學-字節跳動古籍開放文本庫.

茅坤 編, 《唐宋八大家文鈔》, 四庫全書本, 北京大學-字節跳動古籍開放文本庫.

孟國棟, 〈墓誌的起源與墓誌文體的成立〉,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43卷 第5期, 2013.

徐師曾, 《文體明辨》, 昨晷社, 1984.

周遊, 〈晚清桐城派中的王安石文風——兼談〈泰州海陵縣主簿許君墓誌銘〉的意義〉, 《文學遺產》 第六期, 2018.

[識典古籍] <https://www.shidianguji.com>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muzhiming (funerary inscriptions) of Wang Anshi, a prominent Song-dynasty writer, in order to clarify the narrative principles and stylistic features that define their literary and ideological significance. Wang Anshi regarded muzhiming as public records, emphasizing factual accuracy, formal structure, and moral instruction, while rejecting emotional embellishment and private requests. He departed from the conventional chronological arrangement to focus on the subject's spirit and ideas, employing xujing (虛景) to convey emotion with restraint and depth. Moreover, his muzhiming exhibit a critical and discursive character that reflects on the social systems and moral values of his time.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Wang Anshi's muzhiming transcend simple commemorative writing, emerging as complex texts that combine factual record with philosophical reflection and offering an important

example of the transformation of Song-dynasty prose.

Key Words : 왕안석(Wang Anshi), 묘지명(Muzhiming/Funerary Inscriptions), 서술 원칙(Narrative Principles), 문체적 특징(Stylistic Features), 당송팔대가문초(The Selections of the Eight Great Prose Masters of the Tang and Song)

